

# 퍼지모델링을 이용한 선미형상의 주요치수 결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principal dimensions of the stern profile using fuzzy modeling

김수영\*, 김현철\*\*, 신수철\*\*\*, 강사원\*\*\*  
Soo Young Kim\*, Hyun Cheol Kim\*\*, Soo Chul Shin\*\*\*, Sa Weon Kang\*\*\*

###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 알고리즘과 Hooke & Jeeves 방법을 적용한 퍼지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저속비대선에서 선미형상의 주요치수를 결정하고, 이를 실적선과 비교하였다.

###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method that determines the stern profile dimensions for full, slow-speed ship using fuzzy modeling, which is applied the genetic algorithm and the Hooke & Jeeves method. The inferred stern profile dimensions have compared with real ships.

### I. 서 론

일반적으로 저속비대선이란 Froude number 0.2이하, 방형계수(Block coefficient) 0.75이상의 선박을 말하며, 그 주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선수 Entrance 곡선부와 선미 Run 곡선부가 짧고, 중앙평행부가 길다.
- (2)  $C_p$ -곡선은 Entrance와 Run 곡선부가 모두 포물선 모양의 비교적 단조로운 곡선이다.
- (3) Entrance 곡선부는 주로 조파저항을, Run 곡선부는 형상저항과 저항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 (4) 전체 저항 가운데 점성저항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크다.

저속비대선형의 설계는 선형가분의 원리[1]에 따라 수행한다. 즉, 선체전체를 선수 Entrance 부분, 선미 Run 부분 그리고 중앙평행부로 각각 분할하고, 각 부분이 갖는 저항 및 추진 성능상의 주요특성을 조합하여 배 전체의 성능을 추정하게 된다. 이때 저속비대선의 선수미부 Profile형상의 결정은 저항 및 추진 성능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선미부 Profile형상은 선형, 프로펠러,

\*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기계기술연구소

\*\*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대학원

\*\*\* 삼성중공업 조선해양사업본부

타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므로 축적된 전문가의 경험이 요구된다. 선미형상을 결정하는 문제는 타의 형상, 선체의 형상 및 진동 소음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초기선형설계시 체계적인 계산 및 수조시험을 통한 선미부의 기하학적 형상과 위치 검증이 필요하다.

한편, 초기설계시 기존의 저속비대선의 선미형상과 프로펠러의 데이터를 정리해 두고, 이를 퍼지모델링(Fuzzy modeling)으로 처리하면 선미형상의 주요치수가 보다 신속하게 얻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퍼지이론(Fuzzy theory)에 의하면 복잡한 비선형 시스템(Nonlinear system)과 같이 내부구조를 알기 어려운 시스템에 대하여 입출력 데이터만으로도 그러한 시스템의 모델링(modeling)이 가능하다. 퍼지모델링을 선형설계에 접목시키는 연구들은 초기선형을 결정하는 방법 중 유사실적선이 없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Form parameter방법에 퍼지모델링을 이용한 것[2]과 Cp-곡선으로부터 직접 선체선도를 얻는 것[3] 등이 있으나, 이들 방법에서는 선수미부형상이 전체선형과 분리되지 않고 함께 결정된다. 따라서 선형가분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저속비대선과 같이 선수미부 형상을 보다 정교하게 분리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선수미부 형상을 새롭게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형가분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저속비대선형에서 축적된 선미부의 기하학적 정보들도 퍼지모델링을 행하여, 주어지는 설계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선미형상의 주요치수 결정을 시도한다.

## II. 본 론

### 2.1 저속비대선의 선미형상

Fig 1은 다양한 선미형상의 공통적인 기하학적 특성을 나타내며, Fig.1에서의 형상계수(Form parameter)들은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다. 선미형상은 속도-마력 결과에 따른 프로펠러의 특성, Cp-곡선, Run계수  $e_a$  등의 정보들로부터 형상계수를 결정해 나간다[4]. 본 연구에서는 L/B, B/T, 선미부 주형계수  $C_{pa}$ , 프로펠러 지름  $D_p$  등을 초기조건으로하여 퍼지모델링을 사용한 선미형상계수 결정을 시도하며, 선미형상 결정을 위한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begin{array}{ll}
 \textcircled{1} e_a = f(L/B, B/T, C_{pa}) & \textcircled{2} A = f(D_p, \frac{(1-C_{wa})}{(1-C_{pa})}, e_a) \\
 \textcircled{3} B = f(D_p, \frac{(1-C_{wa})}{(1-C_{pa})}, e_a) & \textcircled{4} F = f(D_p, \frac{(1-C_{wa})}{(1-C_{pa})}, e_a) \\
 \textcircled{5} G = f(D_p, \frac{(1-C_{wa})}{(1-C_{pa})}, e_a) & \textcircled{6} H = f(D_p, \frac{(1-C_{wa})}{(1-C_{pa})}, e_a) \\
 \textcircled{7} I = f(D_p, \frac{(1-C_{wa})}{(1-C_{pa})}, e_a) & \textcircled{8} J = f(A, B, F) \\
 \textcircled{9} K = f(A, B, F) & \textcircled{10} C = f(A, B, F, H, I, K) \\
 \textcircled{11} D = f(A, B, F, H, I, K) & \textcircled{12} E = f(A, B, C, D, F, G, I)
 \end{array} \tag{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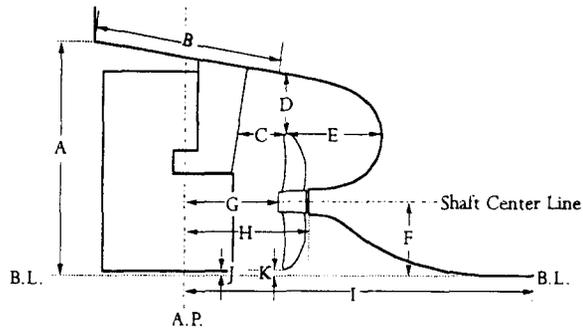


Fig.1 Stern profile geometry

## 2.2 퍼지모델링

퍼지모델링은 입출력 데이터가 구성하는 입력 및 출력 공간으로 부터 각 변수들간의 전체적인 관계를 수학적 모델로서 나타내는 방법이다. 비선형시스템의 특성을 복수개의 선형시스템의 조합으로 근사시키는 이 방법은 입출력 데이터의 관계가 비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보다 효율적인 모델링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의 퍼지모델링은 Tagaki와 Sugeno[5][6]가 제안한 추론 규칙과 근사추론법을 사용하였고, 전제부 퍼지변수 및 결론부 계수의 결정에는 유전자 알고리즘 [7]과 Hooke & Jeeves방법[8]을 결합하여 처리하였다.

퍼지추론규칙은 If~then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i번째 규칙  $R^i$ 는

$$R^i : \text{If } x_1 \text{ is } A_{1i}, x_2 \text{ is } A_{2i}, \dots, x_m \text{ is } A_{mi} \\ \text{then } y_i = a_0^i + a_1^i x_1 + \dots + a_m^i x_m \quad (2)$$

여기서

$R^i$  : i번째 규칙

$A_{ji}$  : 사다리꼴의 퍼지변수

$x_i$  : 입력변수

$y_i$  :  $R^i$ 가 동작하는 규칙의 출력

식(2)에서 If이하 "If x is A"를 전제부(Premise), then이하 "then y is B"를 결론부(Conclusion)라고 하며, 전제부는 퍼지명제가 되고, 결론부는 선형식이다. 그리고 전제부에서 사용되는 퍼지변수는 Fig.2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사다리꼴 모양의 소속함수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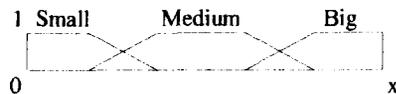


Fig.2 Fuzzy variable of trapezoid form

이러한 퍼지추론규칙이 n개일 때 퍼지추론에서는 식(3)와 같은 하중평균에 의한 근사추론법을 사용하였다.

$$y = \frac{\sum_{i=1}^n w_i y_i}{\sum_{i=1}^n w_i} \quad (3)$$

$$w_i = \prod_{j=1}^m A_j^i(x_j^0)$$

### 2.3 유전자 알고리즘과 Hooke & Jeeves방법을 사용한 퍼지모델링

주어진 입출력관계를 나타내는 최적의 퍼지규칙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제부의 퍼지변수와 결론부의 계수들에 대한 최적화가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퍼지변수 결정을 위한 최적화 처리는 전역적 최적해(Global minimum) 탐색에 효율적인 유전자 알고리즘과 Hooke & Jeeves방법을 합하여 사용하였다. Fig.3은 유전자 알고리즘과 직접탐색법을 사용한 퍼지모델링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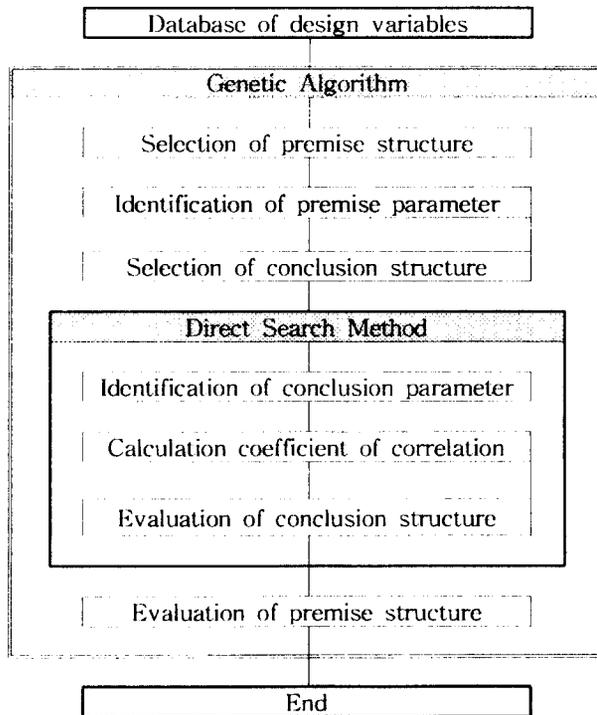


Fig.3 Flow chart of Fuzzy modeling using Genetic algorithm

### III. 비교고찰

주어진 설계조건을 만족하는 선미형상의 주요치수를 결정하기 위해 식(1)의 선미형상 결정함수에 대한 퍼지모델링을 20척의 실적선데이터를 토대로 수행하였다. Table.1은 퍼지모델링에 사용된 실적선에 대한 선미형상계수의 범위를 나타낸다.

Table.2는 설계조건에 따른 선미형상 결정의 결과를 실적선의 데이터와 비교한 것이다. Table.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미형상의 주요치수가 불규칙하게 분산되어 있으므로, 이를 어떤 유형으로 정리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퍼지모델링에 의해 추론된 선미형상 값들은 이들의 데이터 값을 잘 반영시키고 있다. 이는 초기 선미형상설계에서 설계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과거의 시행착오 과정에서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1 The range of stern profile dimensions in fuzzy modeling

Range Dimensions	Minimum	Maximum
L/B	5.47	8.76
B/T	2.61	3.96
Cpa	0.65	0.78
Dp	6.0m	9.8m
$\frac{(I \cdot Cwa)}{(I \cdot Cpa)}$	0.00	0.49

### IV. 결론

이상의 연구내용을 정리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 (1) 선미형상설계에서 타, 프로펠러, 선미형상을 동시에 고려하는 선미형상 퍼지모델링이 가능하다.
- (2) 선미형상설계용 퍼지모델링으로부터 선미형상을 결정하는 각각의 기하학적 선형요소 결정이 가능하다.



## V. 참고문헌

- [1] Taniguchi 외, “선형가분의 원리에 의한 비대선형의 설계법”, 일본조선학회논문집 제120호, 1966
- [2] 김수영, 이연승, “Fuzzy모델링을 이용한 초기선형생성”, 대한조선학회 논문집 第29卷 第4號, 21992
- [3] Y.S. Lee, S.J. Jeong, S.Y. Kim, G.T. Kang, “Hull Form Generation by Using Fuzzy Model”, Fifth IFSA World Congress Proceeding, pp.1234-1237, 1993
- [4] 김수영, 강사원 외, “비대선형을 위한 초기선도 생성에 관한 연구”, 대한조선학회 춘계학술발표회 Proceeding, 1995
- [5] T. Takagi and Sugeno, “Fuzzy Implication of Systems and its Applications to Modeling and Control”, IEEE Trans, Systems, Man and Cybernetics, Vol.15, No.1. pp.116-132, 1985
- [6] M. Sugeno and G.T. Kang, “Structure Identification of Fuzzy Model”, Fuzzy Sets and Systems, Vol. 28 pp.15-33, 1988
- [7] D.E. Goldberg, “Genetic Algorithms in Search Optimization & Machine Learning”, 1989, Addison-Wesley Pub. Company
- [8] L.T. Fan et al, “Method of Optimization - Search Techniques”, Institute for System Design and Optimization, Kansas State University, Oct. 1971